

6개 분야 106개 사업 강화군 누리집(홈페이지) 통해 공개 강화군,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뭐가 있을까?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총 6개 분야 106개 사업으로 ▲복지·보건·교육분야 14건, ▲안전·환경분야 23건, ▲생활·경제분야 8건, ▲농·축·수산분야 18건, ▲문화·관광분야 14건, ▲도로·교통분야 20건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 복지·보건·교육 분야

70세 이상 강화군 거주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8만 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해 준다.

또한, 4개로 늘어난 강화군 장학관의 입사 자격을 완화하여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용료 또한 월 13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하했다.

아울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하고

아동급식비도 1식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을 했다.

🔥 안전·환경 분야

“묻지마 폭행”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치매노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보행자 복합인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한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소화천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강화를 만들 예정이다.

🔥 생활·경제 분야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범위가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되어 인허가 절차 및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 내 ‘강화군 브랜드관’을 운영한다.

🔥 농·축·수산 분야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수당을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급하고,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을 통해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어촌 재생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는 택배 발송 후에 택배비를 일괄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먼저 사업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 결정 후 택배 건에 대해 비용 청구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택배는 운송장에 구체적 품목을 기재해야 한다.

🔥 문화·관광 분야

연중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 및 행사가 계획돼 있다. 오는 4월 봄 콘서트를 시작으로 문화재 야행과 와글와글 원도심 축제, 화개 정원 축제, 10월에 콘서트, 연말 뮤지컬 갈라쇼 등 대형 문화공연이 줄줄이 계획돼 있으며, 각종 버스킹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강화군 곳곳에서 연중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화개정원은 분재 기획전시회 개최 등 연중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거듭나고, (구) 강후초등학교 부지에 개관하는 강화 천문과학관은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교통 분야

서도면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또한 농로 및 마을 안 구석구석까지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은 강화군 누리집(홈페이지)과 SNS(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발행되는 강화 소식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2024 GANGHWA

<https://www.ganghwa.go.kr>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강화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강화군, 갑진년 시무식 개최

유천호 군수 신년사 “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미래시대 준비를 핵심 목표”



2024년 강화군 시무식



2024년 강화군 시무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강화군의회 의원, 인천시의원 및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유천호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미래시대 준비’를 핵심 목표로 2024년 군정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행,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운영, 군민 안전을 위한 보안등·CCTV 설치 확대, 장학기금 150억 원 조기 조성, 미래 첨단 농업 육성 및 어촌 소득 증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지난해 60년 만의 조업한계선 확장, 2개 장학관 추가 개관,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화계정원 개원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도 군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전심전력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현충탑 참배로 2024년 첫 일정 시작



현충탑 참배



현충탑 참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일 강화읍 견자산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화군수를 비롯한 강화군의회 의원, 인천시의원, 강화군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했다.

강화군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매년 현충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안영을 위하여 해누리공원 안장시 관리비와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2024년 군민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유천호 군수, 군민 목소리 들으러 갑니다 '연두방문' 시작

유천호 강화군수가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 강화읍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소통에 나선다.

이번 연두방문에서 군정 운영방안과 주요 시책을 군민과 공유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과 민원은 읍면별 목록화해 관리하고, 부

서별 검토를 통해 빠른시일 내 제도 개선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을 통해 강화군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甲辰年 新年辭



존경하는 7만여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강화군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추진력과 전방위적인 협력·소통으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씨앗들을 뿌리내리게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저는“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라는 소신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60년 만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통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8.2km² 어장을 확장하였으며 나아가 장곶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선정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지정 문화재 보존지역 규제 완화 방안이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여 1천 225만평의 규제 면적 중 58%에 해당하는 710만 평의 규제가 곧 완화되어 금년부터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서울 장학관 2개에서 서울과 인천에 각각 1개씩 장학관을 추가 개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총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화 섬살이 캐나다 수출과 도시지역 판로 확대 및 17,384m² 규모의 ‘미래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인천시에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하여 농어업인 수당 강화군 재정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시비 부담률을 70% 높여 군비 부담액 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올해부터는 1만 1,000여명의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강화군 복지재단은 우리군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꾸준한 건강관리와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하여 39개 헬스케어 경로당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 정식 개원 이후 181일 만에

30만 여명이 다녀간 화개정원과 화개산 전망대의 개장과 더불어 강화읍 원도심 전국 대표 관광지 육성은 연간 방문객 1,700만 여명의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한 나날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올 한해 이뤄나가고자 하는 군정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교통 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배려하여 무상교통을 시행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케어 경로당을 종전 39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과 “묻지마 폭행” 등 범죄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골 마을 구석구석까지 LED 보안등과 CCTV를 촘촘히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군민이 없도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군민들의 여가, 체육, 문화, 육아 활동의 충분한 보장을 위해, 신정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강화군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였으며 하점면, 양사면 주민들의 오랜 꿈이자 바램인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더불어 선원면에 늘어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신축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길상면 온수리 지역에 14,352m² 규모의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강화읍 남산 및 관청 근린공원에는 야간조명과 조경작품 등 테마 경관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 쉼터를 확대 하겠으며 강화읍과 길상면의 군립 키즈카페 프로그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여 엄마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향유와 육구 충족을 위해 강화군 최초의 전문공연장 건립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미래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내년 부터 서울과 인천에 4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고 사용료를 월 1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장학기금 30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50억 원의 장학금을 조성 후 12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미래농업 준비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신기술 시

험포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나아가, 종전 5개 농기계은행에 서부 분점을 추가 신축함으로써 총 6개의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3천 900여 평 부지에 스마트 온실, 식물공장 등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팜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를 통해 어촌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여‘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구현하였으며 우리군 전통산업인 소창산업과 왕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품물시장 주차장 확충, 외식업소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700만 여명이 방문하는 우리군 은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을 촉진 함으로써 소비의 획기적인 증대를 도모해야 할 때 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인 화개정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에 수목·초화 추가 식재, 조형물 조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고 주차면 수 확대를 위해 제2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강화읍 문화재 야행 개최와 원도심의 보고 즐길거리 확대, 하점면에 강화 천문과학관을 새롭게 개관 운영하여 야간관광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 면마다 특색있는 지역만의 행사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포 종합어시장 건립, 함상공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외포항을 전국 최고의 관광항으로 만들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으며 수십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는 광역교통 인프라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은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초지대교~거점도 간 해안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더 구체화 하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에 신속한 추진을 끊임 없이 건의하겠습니다.

주문 연도교 건설을 금년 중에 착공하고, 불음 연도교 건설은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서도면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숲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그래왔듯이, 저와 강화군 공직자들은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강화 시대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소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강화군수 유 천 호

2024년도 甲辰年 新年辭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의장 박승한
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왕성한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강화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 여러분
께 새로운 희망을 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우리 강화군의회는 군민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
서, 강화군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회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가겠습니다.

민이가 곧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 뛰고 더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의견이 군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강화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화군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작
했던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의정연수 교육을
맡겨름삼아, 정밀한 입법활동·예·결산심의·행정
사무감사는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의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반드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7만 군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4년 새해”라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게 됩니다.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면 길이지만, 함께하면 역사가 됩니다!”

앞으로도 강화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밝아오는 갑진년(甲辰年)에는 새롭
게 펼쳐지는 화합과 도약의 길을 우리 군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7만 군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강화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새해 새아침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7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축복, 그리고 웃음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강화군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박용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가 저물고 새
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가
득찬 2024년 갑진년(甲辰
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더 밝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물가상승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 본연의 자리에
서 묵묵히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주신
덕분에, 풍요롭고 행복한 강화 만들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을 돌아켜보면, 저는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강화군 발전을 견인할 예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해왔습
니다.

먼저, 맹지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고 농어업인 수당 지급
관련 조례 및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관련 조례
등 여러 조례개정을 통해 강화군 발전을 저해시
키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특히,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강화섬쌀
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인천
관내 4개 대학교 아침밥상 지원예산을 강화
섬쌀로 직접 지원하는 등 제 지역구인 강화군의
농·수·축산물을 인천시에 알리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강화군의 인천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며 2024년 새해에
도 반드시 용맹하고 지혜로운 청룡과 같이 여러
분의 밝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길이 없을 때는 길을 찾고, 위기가
찾아오면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
으로 새해에는 더 뛰고 더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분 한분의 삶
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
을 다하겠습니다.

“투박하더라도, 곧고 바른길로만 걸어가겠습
니다!” 시의원이라는 저의 권한은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시의원
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년 내내,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연초에 계획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도 甲辰年 新年辭



김성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갑진년 새해에 덕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작년 강화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부모, 강화군청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학생 성공시대를 이루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안심되는 돌봄교실, 천여 명이 참가한 강화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그리고 이준 열사를 호위했던 강화 출신 이능권 선생의 흔적을 따라 강화인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던 감비고차 탐사활동 등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실 증·개축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천호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강화의 학교는 매년 25억 원 이상의 교육특별보조금을 강화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큰 교육 성과와 만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에 세운 4곳의 장학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강화교육은 미래를 앞서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거 1,000년의 기술보다 최근 100년의 변화가, 과거 100년의 변화보다 최근 10년의 변화가 더 놀랍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야 할 미래는 이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강화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고 그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개개인의 결대로 꿈을 키우고, 그들의 삶의 영역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4년은 강화가 현대의 맹모지교를 이끄는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라는 벽은 강화의 미래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은 이 벽을 뚫고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색깔 있는 교육과정은 이미 타 지역에 소문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강화로 전학 온 학생이 강화 밖으로 전학 간 학생보다 290여 명 많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강화가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고 학부모들이 강화교육이 좋아서 강화의 학교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강화의 학생들과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천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장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생명이 용솟음침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으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에는 강화노인회 50년사의 발간을 통하여 지나온 반세기를 되돌아보고 100세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운동 초창기에 지회 조직을 결성하고 출범한 강화노인회는 그동안 회장님들의 노력과 강화군의 지원으로 지금은 전국 최고의 노인회,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의 면모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7일 서울 프레스 센타에서 개최된 올해를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강화군 지회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

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제3별관 건축이 확정됨에 따라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될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 유천호 군수님과 관계기관 그리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봉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화투데이를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투데이 발행인 신봉기입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면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없던 기운까지 생겨나고 의욕이 넘치곤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뒤로하고 힘차게 도약하고자 다짐했던 지난 해는 몇년간의 안일함과 불안함을 뒤로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한 해였기에 많은 일 있어 때로는 생소하고 낯선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단지 몇년 사이에 움츠러들고 수동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조금씩 기지개켜며 활동을 준비했던 한 해였지요.

그렇다면, 푸른 용의 해인 올해는 푸른 용만큼이나 기운차고 활동적인 한 해로 꾸며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화군에서 내려온 올 한해의 정책과 군수님의 신년사를 통해 강화군의 새로운 도약과 성취에 대한 파란 신호등을 기대하게 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올해의 고사 성어로 소개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현재 국내외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던 작년 한 해를 보냈고 올해 또한 뚜렷한 발전에 대한 난제들이 많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은 언제나 힘든 역경에 더욱

강했던 민족임을 잊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의 120%를 발휘한다면 정상궤도를 지나 또 다른 신화를 재현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새로운 설렘과 희망으로 의욕이 넘칩니다. 자신만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 목표들 중 많은 것들이 작심삼일에 끝날지라도 도전하지 않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닌 언제나 진취적인 삶을 표방함으로써 우리 개개인 모두의 희망을 꽃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강화투데이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지역신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강화군민의 입장에 서서 올 한 해가 가져올 따듯하고 감동적인 강화군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그려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갑진년 첫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8일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미래치유농업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군·구별 인천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각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8개 군·구 자치단체장들과 글로벌도시정부부시장(황효진)은 지난달 인천시에서 발표한 인천형 출산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올해부터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함께 출산 가정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1040만 원)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며, 각 군·구별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을 일몰하는 것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강화군은 아이 출산 시 해당 가구에 첫째아 총 740만원 둘째아 1,160만 원 셋째아 1,960만 원, 넷째아부터는 2,8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한자리에 모인 군수·구청장들은 한목소리로 인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시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예산 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군·구와는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유 군수는 가좌분뇨처리시설 강화군 반입량 배정 등에 대하여 건의했다. 강화군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1일 30톤 처리 용량 초과에 따라 시설의 개선 및 증설을 모색했으나, 문화재 보호 구역 문제로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좌분뇨처리시설 반입 군·구 배정량이 2,600톤이나 강화군만 자체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유 군수는

강화군의 1일 적정 처리 한도인 47톤 중 30톤은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17톤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반입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으며, ‘2040 인천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강화군 위생처리장 시설 과부하로 인한 처리 불가 시 일요일에 한하여 사전 협의 후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반입 협조가 가능하고, 대규모 주택 사업 시행에 따른 강화군 공공하수 확충사업은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25. 7.)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화군 특색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고 분뇨처리 문제 또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천시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갑진년, 희망찬 새해 기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강화군, 4년 만에 울린 제야의 종소리, 군민 등 300여명 참석



제야의종 타종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31일 자정, 강화읍 고려궁지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타종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시의원을 비롯해 새해 소망 영상 이벤트에 참가한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은 사전 행사로 준비된 아카펠라 공연과 대북 퍼포먼스, 체험행사를 즐기며 희망찬 새해를 학수고대했다.

본 행사인 타종 직전에는 군민들이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고, 내빈과 군민들

은 총 33번의 타종을 진행했다.

아이와 참석한 군민은 “늦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라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왔다”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유천호 군수는 “올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길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선원면 출신, 실무능력과 기획력 겸비한 행정가 강화군, 윤도영 부군수 취임...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년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다.

강화군 건설기획단은 강화군 소속 시설(토목)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매년 읍·면에 필요한 주민 편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와 측량을 자체 시행함으로

써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밝은 읍·면 소속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올 한해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자재 우선 구매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표준시장단가 및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건설사업 180건, 공사비 약

95.8억 원에 대해 자체 측량·설계를 진행하고 약 8억 원의 설계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기획단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조기발주, 주민숙원사업 신속 처리 강화군 2024년 건설기획단 운영...지역경제살리기 총력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4년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다.

강화군 건설기획단은 강화군 소속 시설(토목)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매년 읍·면에 필요한 주민 편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와 측량을 자체 시행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밝은 읍·면 소속 토목 직 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

실 있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 및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기획단은 건설사업 180건, 공사비 약 95.8억 원에 대해 자체 측량·설계를 진행하고 약 8억 원의 설계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기획단 운영을 통해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올해 15개소 추가 설치, 강화군, 헬스케어 경로당 이용자 94%가 '만족'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1월27일~12월15일 3주간 헬스케어 경로당(39개소) 이용자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이용자 500명과 매니저 13명으로, 조사 항목은 측정기기 편리성, 측정 결과 정확성, 서비스 운영 전반, 양방향 화상 시스템 도입, 매니저 방문 주기 등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건강측정 기기의 사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87%의 응답자가 건강측정 결과가 정확한 것 같다

고 답했으며, 헬스케어 경로당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해서는 83%의 응답자가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고 헬스케어 매니저 방문 주기 부문에서는 주 2회 이상 방문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2%로, 대다수 어르신이 헬스케어 매니저가 방문해 건강측정 기기 이용 등의 도움을 주기를 바랐다.

- 최백하 기자

로컬팜 빌리지 조성, 농기계은행 서부 분점 신축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 207억 최대확보, 전년 대비 23.4% 증가



농업기술센터 전경



농기계은행 남부분점시안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4년도 본예산에 농촌진흥사업 예산 20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선정, 중앙 및 인천시, 강화군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이 처음 2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4%인 39억 원 증가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8억 원, 시비보조금은 36억 원이다.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로컬팜 빌리지 조성 52억 원 ▲농기계은행 서부 분점 신축 25억 원 ▲스마트팜 첨단농업 육성 지원 13.8억 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9억 원 ▲고소득 시설원에 특화작목 육성 6.4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6.2억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5억 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대표 품종 육성 및 농업 기반 시설 현대화, 미래농업 기술 지원, 현장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강화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업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농업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오는 8일 ~ 26일까지 선착순 접수 / 6개 과정 및 특성화 3개 과정



강화군농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강화군농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4년 상반기 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업아카데미는 현장 중심의 기술 습득과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2024년 총 15개 과정 중 상반기에 6개 과정 및 특성화 3개 과정을 운영한다.

6개 과정은 ▲발착물 ▲소형농기계 ▲토마토현장컨설팅(고급) ▲양념채소 ▲포도(고급) ▲생활원예이며, 특성화 3개 과정은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떡제조기능사 과정이다. 특히, 특성화 과정은 총 72~80시간(18주~24주)으로 구성해 기본부터 탄탄하고 심도 있게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축산업등록증을 구비해 (단, 귀농귀촌과정 제외)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jlee123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1월 8일부터 ~ 26일까지이며, 100% 서류전형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1인 2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5일(월)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력육성팀(☎ 032-930-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농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강화소방서, 장기근속 봉사 등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



장기근속 업무 유공자 표창수여

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5일 3층 대회의실에서 30년 장기근속 봉사 등 업무 유공자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30년간 공직에서 헌신·봉사한 장기근속 대원과 소방 각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유공 내역은 ▲30년 장기근속 봉사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 ▲안전문화 교육 유공 등이다.

박성석 서장은 “지난 30년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소방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강화소방서, 동막해변 갯벌에서 작업자 구조



동막해변 갯벌 구조현장

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지난 5일 오후 3시 8분께 여차리 917-9 나폴리 펜션 전방 100M 부근 갯벌에서 작업하다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갯벌에서 말뚝 작업을 하던 도중 갯벌에 다리가 빠져 탈출하지 못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악구조대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수난용 들것을 사용해 요구조자를 안전 구조 후 귀가 조치했다.

고재일 산악구조대장은 “갯벌에 고립되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갑각류나 다른 위험 요소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며, 119신고 등 주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화소방서, 제11대 박성석 서장 취임



박 성 석
강화소방서 서장

강화소방서는 지난 1일 제11대 서장으로 박성석 전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성석 신임 서장은 1991년 소방장 특채(11호 특별채용)로 임용돼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그는 탁월한 현장 지휘통솔 능력과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특유의 온화한 인품으로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성석 서장은 “직원과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면서도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펼쳐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제9대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장, 한양수 센터장 취임



한 양 수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장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삼산면장, 안전행정과장, 복지지원실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해왔던 한양수 전 복지지원실장은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제9대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센터장 취임을 하며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에 충실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

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이 행복한 강화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하며 강화군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기고

이경수

사극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친다는 염원을 담아 고려 현종 때 충북 제천에 세운 비이다.)

존 웨인, 그레고리 펙, 클린트 이스트우드...

소식적에 폭 빠져서 보던 서부영화의 주인공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백인들을 위협하던 인디언들이 미웠어요. 마침내 야비한 인디언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백인 주인공, 만세! 통쾌했습니다. 영화음악까지 멋들어졌지요.

그런데, 아, 일종의 세뇌였던 것 같습니다. 인디언은 아메리카 대륙 그 땅의 주인이고 백인들은 침략자입니다. 침략자에 맞서 싸우는 원주민들의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선악을 구분한다면, 인디언이 선이요, 백인이 악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저는 무조건 백인이 선이요, 인디언을 악으로 여겼습니다.

굳이 '세뇌'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는 우리네 시각에도 일정 부분 편견이 스며있어요. 중국사를 한족(漢族)의 역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바로 그 편견입니다. 오랜 세월 중국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다른 민족들의 역할을 깎아내립니다. 한족은 선진 문명의 주체이고 이민족들은 미개한 종족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잔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란(요나라), 여진(금나라, 이후 청나라), 몽골(원나라)도 한족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 역량을 갖추고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만나게 될 거란은 자체 문자를 갖고 있었고, 일본도 하지 못한 대장경을 간행했던 나라입니다.

고려와 조선 당시 중국왕조는 송·원·명·청, 송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로 이어졌습니다. 한족 왕조인 송나라는 거란과 여진에게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그들의 위협 속에 있다가 몽골에 멸망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때 한족은 통째로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되면서 한족이 중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만 만주족(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때 가서 한족은 다시 만주족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머리 모양까지 만주족과 같은 변발을 해야 했습니다.

고려 때는 국제 관계가 참 복잡했어요. 한족 왕조 송나라와 거란, 여진, 몽골이 잇달아 맞붙어 싸웠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는 거듭 외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략 건국 초인 10세기와 11세기에 거란과 전쟁을 치렀고 12세기에는 여진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항쟁을 펼쳤습니다.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63세입니다. 현대극보다는 사극에 어울리는 연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좀 출렁출렁하는 이미지인데 사극에서는 단박에 묵직해집니다. '태조 왕건', '태양인 이제마', '대조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해신'에서도 주인공인 장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어느 사극에선가는 강화도령 철종 역으로 나오기도 했지요.

이번에 그가 강감찬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빛납니다. 방영 중인 KBS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32부작)의 주인공입니다. 이 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기며 잘나가고 있습니다. KBS·MBC·SBS만 있던 때로 치면 아마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일 겁니다.

자, 이제 당시의 역사와 드라마를 연결하면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교과서 기준으로 볼 때 거란의 고려 침략은 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 1차 침략(993), 2차 침략(1010~1011), 3차 침략(1018~1019)입니다. 이렇게 딱 세 번만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만, 편의상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략은 서희(徐熙, 942~998)가 거란군 총사령관 소손녕과 담판 외교를 펼쳐 위기를 극복합니다.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은 2차 침략부터 다루기 때문에 서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강감찬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거란군을 물러나게 하고 강동6주까지 확보하게 됐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란의 2차 침략 때 단연 돋보인 인물은 양규(楊規, ?~1011)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강감찬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역시, 양규를 아는 이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 양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양규가 압록강 아래 흥화진에서 7일간 계속된 거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거란군은 할 수 없이 흥화진을 포기하고 남진하게 됩니다. 거란군은 '적'을 뒤에 두고 남쪽으로 가면서 스스로 퇴로를 막은 꼴이 되었습니다.

신출귀몰하며 거란군을 휩쓸던 양규가 드라마 16회(2024.01.07.) 방송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지승현 배우가 양규 역을 맡는다고 예고했을 때,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MBC 사극 '연인'에서 길재의 찌질한 남편 구원무를 연기한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규 그 자체였다고 할 만큼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양규였다면, 흥화진 성안에 얽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 지키 임무를 완수했으니,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면 상 받고 승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규의 마음은 오로지 나라와 백성이었습니다. 안전한 흥화진을 나와 통주로, 곽주로 이동하면서 거란군을 급습해 무찌르고 잡혀간 백성들 수만 명을 구해냈습니다.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강감찬도 크게 활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거란군에게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어낸



양규, 현종, 강감찬(출처 KBS)



거란의 글씨가 새겨있는 거울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거란의 2차 침략 때 강감찬이 적을 몰아내기 위해 무진장 애썼을 것은

권과 군사력이 허약한 봉건제 시기였고요, 미국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요, 중국 송나라는 거란에 쪼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란의 침략을 고려가 끝내 극복해 낸 것입니다.

김준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단역이나 조연으로 나오는데 강패 등등, 나쁜이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처럼 주연급 조연을 맡았지요. 바로 거란군 총사령관 소배압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꽤 괜찮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배우 본인도 가족들도 상당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저도 축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요, 평생을 악인 역할만 맡는 배우를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응, 어디서 봤지?’

고려 현종 역을 맡은 배우 김동준이 낮익습니다. 아, TV 변비약 광고에 나오는 친구였네요. 임금 연기 점점 잘합니다. 그런데 현종 임금의 옷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사극에 나오는 조선의 임금들은 대개 붉은색 어의를 입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가 황제국이었던 때문입니다. 황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현종을 부를 때 ‘전하’라고 하지 않고, ‘폐하’라고 합니다. 강감찬의 관직명이 ‘예부시랑’이었습니다. 예부시랑은 조선 시대로 치면 예조참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서 다음 자리가 참판이에요. 조선은 이조, 호조, 예조 이렇게 ‘-조’라고 했고 고려는 이부, 호부, 예부 이렇게 ‘-부’라고 했습니다. 황제국에서 관청 명을 ‘-부’라고 하고 제후국에서는 ‘-조’라고 합니다.

앞으로 드라마에서 전개될 3차 침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배압이 다시 올 겁니다. 호기롭게 침공했다가 비참하게 퇴각한 지 7년 만인, 1018년(현종 9)에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번엔 거란 임금 성종은 오지 않아요.

이에 맞서는 고려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강감찬(姜邯贊, 948~1031)입니다. 이때 나이가 72세였습니다. 강감찬을 보통 장군으로 부르기에 무신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과거에 급제한 문신입니다. 36세 때인 983년(성종 2)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이 과거 시행을 주관한 인물이 시무28조로 유명한 최승로입니

다. 강감찬은 원래 이름이 강은천(姜殷川)인데요, 과거에 합격한 뒤에 강감찬으로 개명했습니다.

강감찬은 흥화진 성 동쪽 강물을 쇠가죽으로 막아 두었다가 일시에 물을 내려보내게 해서 도강하던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그래도 거란군은 꾸역꾸역 남하를 계속해서 개경 근처까지 이릅니다. 즉위하자마자 거란군의 침략을 당했던 현종, 그때는 전라도 나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성을 지키며 군사를 지휘해서 거란군을 무찌릅니다.

보급이 끊어진 거란군은 어쩔 수 없이 개경 점령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퇴각하는 거란군을 강감찬이 공격하며 뒤따릅니다. 이윽고 귀주. 여기서 강감찬은 거란군과 싸워 크게 승리합니다. 성 밖 벌판에서 벌어진 전면전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을 《고려사절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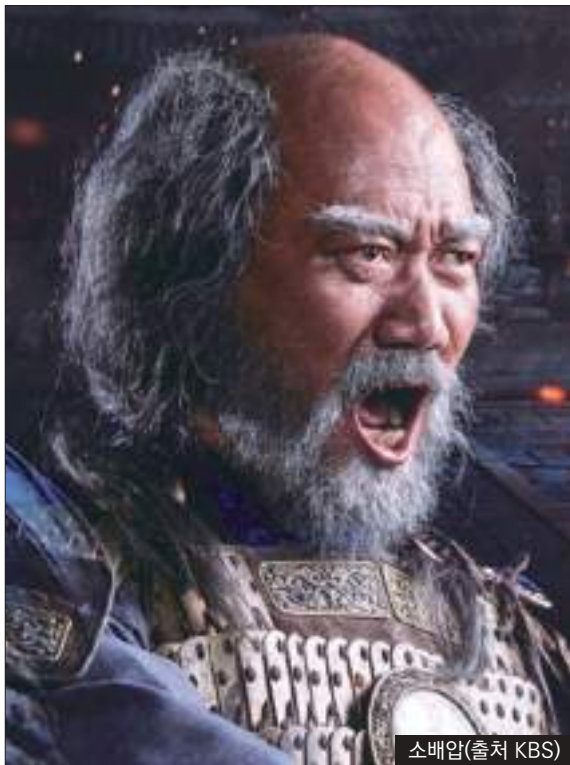
거란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東郊]에서 마주하여 싸웠으나 ... 살아서 돌아간 적군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거란의 병사들이 패배한 것이 이때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참패 소식을 들은 거란 성종이 소배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적을 가볍게 보고 깊이 들어감으로써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인가? 짐이 마땅히 너의 낮가죽을 벗겨낸 이후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거란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 거란은 다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고려에 평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고등학생이 있다면, ‘10·11세기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그리고 ‘거란의 1차 침략-서희, 2차 침략-양규, 3차 침략-강감찬’, 이렇게 외워두기를 권합니다.

※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3차 침략 당시 거란군 총사령관을 소손녕이라고 적었습니다. 1차 침략 때 서희와 담판했던 그 소손녕입니다. 하지만 이는 뭔가 착오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소손녕은 1차 침략 얼마 뒤인 996년(성종 15)쯤에 사망했습니다. 3차 침략 때 거란군 총사령관은 소배압이 맞습니다.



소배압(출처 KBS)

자명합니다.

퓨전 사극과 달리 정통 사극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극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史實)일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줄기라고 할까요, 이야기의 흐름은 역사를 따라가되, 인물 묘사 등 세세한 내용에서는 작가의 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란의 2차 침략! 성종(聖宗, 야율유서)이 직접 대군을 몰아 고려로 쳐들어왔지요. 무려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도 개경까지 점령했으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철군했습니다. 양규를 비롯한 고려인들의 끈질기고 처절한 저항의 결과입니다.

당시 거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유럽 나라들은 왕

新年辭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시민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뜻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1만8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로 지난해에는, 인천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언론, 시민단체 등 인천시정에 대한 외부 평가 121건 중 65%, 78건의 평가에서 대통령상 등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인천의 GRDP가 104조원이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인천은 명실공히 제2의 경제도시, 서-인-부-대를 다시 이뤄냈으며 제1의 행복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걷어냈으며, 낡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맞춤형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등 주민들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뤄내고, 24년간 담보상태에 있던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을 전격으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등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인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매계약 체결로 청라의료복합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입니다. 120년 전 이 땅의 첫 이민자들이 처음 출발한 곳이 바로 인천의 제물포항입니다. 그 이민자들의 후손이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300만 인천시민과 700만 해외동포로 1,000만 인천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제73회 9.15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 인천을 ‘세계평화의 도시’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로 글로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개청과 세계평화도시 선언을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024년은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인천의 현안을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견(見), 문(聞), 연(連), 행(行)이라는 네 글자로 올해 시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뜻 그대로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마음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쉬 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시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의 정서, 수요자의 환경과 입장을 확인해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민생 현장, 정책 현장, 산업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걷고, 뛰겠습니다.

둘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민선8기 인천시의 비전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를 목표로 ‘균형’, ‘창조’, ‘소통’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시정가치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가슴에 진정성을 담고 시민과 소통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돌봄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자립 정착 지원과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이 해 주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인천이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세계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천시 모든 공직자가 인화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소재와 성과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시민 보고회에서 로컬 콘텐츠, 규제혁신, 거점 사업, 특화 교육 등 원도심을 살리는 체계를 확립하고, 제물포의 가치를 알리는 ‘제물포 세일즈’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인천은 이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의 성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GTX-B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인천 순환노선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바이오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와 바이오특화

단지 유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 도시 인프라 여건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뮤지엄파크 건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아라뱃길 활성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강화와 168개 천혜의 관광자원인 서해의 보물섬을 내륙과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4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세계가 찾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입니다. 1883년 개항을 통해 근대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인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1883년 제물포항을 개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천은 한반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국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한 포용(Inclusive)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천이 보유한 최초, 최고의 역사적 문물과 문화는 대한민국이 세계 6대 강국으로 커 나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인천항 개항이 첫 번째 개항이었다면, 인천국제공항 개항은 제2의 개항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의 인천개항’을 선포합니다.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고, 2001년 인천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면 2024년은 세계인의 마음길을 열겠습니다.

제3의 개항은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반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도시전략을 통해 세계 10대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류가 겪고 있는 다중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인천이 앞장서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인천이 세상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인천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Reopening of Oceans, New Waves of Change)에 전 세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장이 일하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인천시는 올 한해, 인천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이 편안한 부인안민(富仁安民)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인천이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풍요롭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최고의 글로벌 미래도시로 만드는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세계가 위대한 정신으로 지켜낸 기회의 땅이자 창조 도시인 인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시, 저와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인천시장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위대한 인천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천의 멋진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릴레이 이웃사랑 성금 기탁 이어져



이웃돕기 기탁식 (양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기탁식 (강화 야영장 연합회)



이웃돕기 기탁식 (그린스토리투어)



이웃돕기 기탁식 (길상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기탁식(옥림1리)



이웃돕기 기탁식 (유경환, 윤은서 부부)



이웃돕기 기탁식 (한국자유총연맹 삼상면분회)



이웃돕기 기탁식 (길상면 이장단)



길상면 강화남지방 이웃돕기 성금



양도면 교회협의회 성금기탁



양도면 동광중 성금 기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기부금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교동면, 면정 발전에 한마음 한뜻 모아



교동면 시무식 개최

강화군 교동면(면장 조현미)은 지난 2일 이장단 및 새마을남여지도자,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면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시무식에서 2024년도 신임 이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군수님 신년사 대독 및 교동면장 신년 맞이 인사 등의 순

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조현미 면장은 “2024년 새롭게 바뀐 이장, 남녀지도자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2024년에도 모든 관내 기관단체장님들이 한마음으로 면정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불은면,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은면 시무식 개최

강화군 불은면(면장 염명희)이 지난 2일 불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 새마을남녀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및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23년도 강화군새마을지도자 대회 우수단체 시상제’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불은면 새마을부녀회의 공을 기리며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한 유관단체의 노고를

격려했다. 더불어, 군수님 신년사를 대독하고 불은면장 신년맞이 인사, 떡케이크 커팅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염명희 면장은 “2023년도 관내 유관단체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또한, 면정 업무에 대해 유관단체장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년 시무식 및 제37대 선원면장 취임식 개최

선원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마을 만들어요



선원면 시무식 및 면장 취임식 개최

강화군 선원면(면장 서광석)이 지난 2일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1월 1일 자로 임명된 서광석 선원면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선원면 주민들이 모여 2024년도 강화군의 신년사를 듣고, 선원면장으로 발령받은

서광석 면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서광석 면장은 “면민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는 면장, 면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면장이 되겠다.”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원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사면,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새해 맞이



양사면 시무식 개최

강화군 양사면(양사면장 이지영)이 지난 2일 2024년 갑진년 시무식을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지영 양사면장을 비롯해 양사면 전 직원 및 이장단, 관내 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2024년 연임 이장에 대한 임명장과 2023년도 4분기 모범선행시민 표창 수여, 신년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서는

2023년도 양사면의 주된 활약을 나열하며 추억을 회상하고 2024년에도 더욱 발전된 양사면이 되기를 응원했다. 아울러 이지영 면장은 “청룡의 해인 2024년, 용이 승천하는 듯한 힘찬 기운으로 새해에는 꿈꾸는 많은 희망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양사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하점면장, 경로당 방문으로 소통 시작

강화군 하점면으로 2024년 1월 1일 부임한 박인상 하점면장이 지난 3일부터 관내 23개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면정 업무를 시작했다.

면내 어르신들께 부임 및 새해 인사를 드리며 한과 대비 경로당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

망월2리 산화경로당 회장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신임 면장을 반겼다.

이에 박인상 하점면장은 “반갑게 맞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과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점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하점면장 경로당 방문

건강을 나누는 삶

글·그림 나영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료함을 극복하고 손동작, 지남력유지로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시작하신 불은면 고능로에 거주하시는 82세 나영식님이 소박한 삶을 그린 그림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나영식님은 고령의 나이에 노인일자리지원을 통해 거리에 휴지 줍는 일을 하여서 모은 돈 100만원을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 마음까지 따뜻하신 분이시다.



(매화꽃)
천년지기 매화꽃 칼예버 보이네요 천년지기매화꽃 눈으로 감상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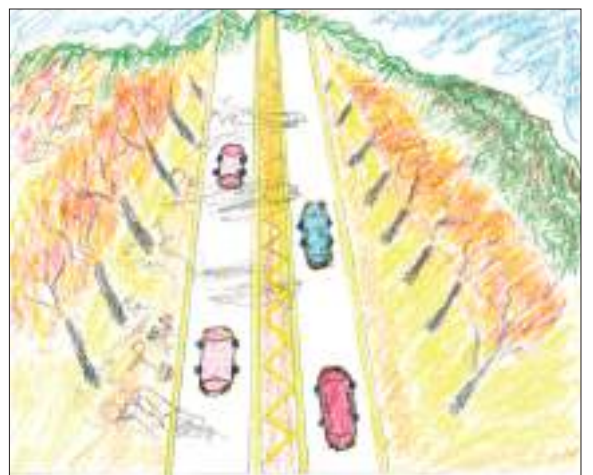
(코가집)
마누라고 정막한 산골 코가집 한채 슬슬히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네 코가 지붕위에 박이 두렁 두렁하네 저박을 한동라면 공은 보좌가 들어 이르리라 달밝은 보름달이 빛주고 마광 잔티밭에 경풍이 개가 집을 지키네



(산골계곡)
삼삼속에 계곡 생각을 해가며 그려본 길은 산속에 계곡 모리 한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 보기 좋으나라



(강화도외포항)
외포항 어시장에 각종생선 건어를 도시엔 들어야 많이봐 와서 어물도 많이사 시고 외포항이 예전과리 새로운 광구가 되어 구경 할만함 곳이 많으나라



(단풍로)
단풍로 차들타고 여행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쾌하고 들뜬 마음이겠네 붉게 물든 단풍로 풍요로 읍네

강화군보건소, 임신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성료’



강화군 임신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했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보건소 내소와 외부인의 방문을 주저하는 임신부들에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임신 주수에 따른 단계별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임신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31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진행했다.

임신 주수에 따라 필요한 검사 항목과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변화, 태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태교 동화책, 애착 인형 만들기, 손목 보호대 등의 홍보물을 제공했다. 또한, 예방접종과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보건소 사업 안내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비대면 서비스 참여 임신부는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는데 집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러워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화군의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진 기자

총 130호 공급, 올해 12월 준공예정, 내년 7월부터 입주 (9일~11일 청약 접수) 강화군, 신문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일~11일 3일간 강화읍 신문리 596-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강화 신문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공주택은 강화에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공급량은 영구임대(30호)·국민임대(60호)·행복주택(40호) 등 총 130호이며,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이고, 국민임대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강화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일자리는 국민임대 우선 공급 1월9일, 국민임대 일반공급 1월 10일, 행복주택 1월 11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영구임대는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SS 삼성인쇄광고기획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032)934-7778 / 010-6608-7778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